

국·영·수 1등급 비율 10% 이상 격차… ‘사탐런’ 현상 뚜렷

수능 9월 모의평가 분석

국어, 1등급 5.38%… 변별력 상승
수학, 최고점수·1등급 컷 감소
영어, 역대 세번째로 쉽게 출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국어가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변별력을 보인 가운데 영어 1등급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늘고 과학탐구 응시자는 줄어드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뚜렷했다. 입시 업계는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의 변별력 있는 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 1등급 구분점수(컷)는 131점이었다. 1등급 인원은 1만6363명으로 전체의 4.16%였다. 최고점자는 75명이다.

국어는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6월 모평은 최고점 132점, 1등급 컷 128



사진/뉴시스

점, 1등급 비율 5.38%(2만2018명)였다. 9월에는 최고점이 12점, 1등급 컷이 3점 올랐고 1등급 비율은 1.22%포인트 낮아졌다. 진학사는 이번 모평에서 국어의 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 1등급 컷은 128점이었다. 1등급 인원은 2만16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5.55%를 차지했다. 최고점자는 2741명이다.

2027 수능 9월 모의평가 등급별 점수

등급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표준점수	비율(%)	표준점수	비율(%)	원점수	비율(%)
①	131	4.16	128	5.55	90	15.54
②	124	7.93	122	8.23	80	22.58
③	117	11.59	118	9.97	70	23.48
④	108	16.85	111	16.48	60	15.18
⑤	96	20.6	96	20.39	50	7.41
⑥	83	16.68	78	16.87	40	4.54
⑦	71	11.33	72	13.14	30	3.66
⑧	65	7.49	69	5.66	20	5.39
⑨	65미만	3.37	69미만	3.72	20미만	2.23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고점은 6월 모평(138점)보다 1점, 지난해 9월 모평(140점)보다 3점,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2점 낮아졌다. 1등급 컷도 6월(129점)과 지난해 9월(131점)보다 각각 1점, 3점 낮다.

반면 1등급 비율은 6월(4.83%·1만9629명)과 지난해 9월(4.24%·1만7065명)보다 각각 0.72%포인트, 1.31%포인트 높아졌다.

종로학원은 국어가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으며, 국·수 난이도 격차가 수능 점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영어 1등급 인원은 6만1457명으로 전체의 15.54%로, 지난해 9월 모평(4.50%)보다 11.04%포인트 높았다. 이번 시험은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6월·9월 모평과 수능을 통틀어 세 번

째로 쉽게 출제됐다.

1등급 인원은 지난해 9월 모평(1만8373명)보다 4만3084명 늘었고, 올해 6월 모평(1만6979명)보다 3.6배에 많았다. 9월 모평만 놓고 보면 2023학년도(15.97%)에 이어 1등급 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수능에서는 영어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탐구는 응시 규모가 엇갈렸다. 사회탐구 9개 과목의 응시 인원(과목별 합산)은 60만6966명으로 지난해 9월 모평보다 5만9292명(10.8%) 늘었고, 과학탐구 8개 과목은 17만893명으로 8만4301명(33.0%) 줄었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시험 난도보다 수험생의 탐구 선택 자체가 더 눈에 띈다”며 이런 흐름이 수능까지 이어지면 자연계 최상위권 모집 단위의 지원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고려대·연세대, 내일 ‘61주년 정기전’ 개최

잠실야구장 개막식… 양일간 진행

고려대와 연세대가 서울 잠실과 목동 일대에서 61주년 정기전을 개최한다.

고려대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2026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가 주최하는 올해 연고전은 2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오후 3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오후 5시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된다.

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럭비에 이어 오후 2시 축구 경기를 끝으로 정기전 일정이 마무리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은 1920년대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스포츠 교류에서 시작됐다. 1925년 정구대



2025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 현장. /고려대

회와 1927년 보성전문-연희전문 축구 경기를 계기로 교류가 이어졌고, 1965년부터 야구·농구·빙구·럭비·축구 5개 종목을 겨루는 현재의 정기전 형태가 자리 잡았다.

올해 정기전은 지난해 고려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다. 2024년까지 20승 11무 20패로 동률이던 역대 종합 성적은 지난해 고려대 우승으로 고려대 기준 21승 11무 20패가 됐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내년 공립중등교원 694명 선발

전년도 대비 선발인원 306명 ↓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물품 지정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694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1000명보다 306명 줄어드는 규모로,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900명에서 584명으로 316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공립에서는 중등교사 584명을 비롯해 중등 특수교사 26명, 보건교사 23명, 영양교사 32명, 사서교사 6명, 전문상담교사 23명 등 24개 과목에서 694명을 뽑는다.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787명에서 2025학년도 914명, 2026학년도 1000명으로 증

가했지만, 2027학년도에는 694명으로 감소했다. 교육청은 교원의 정원 변동과 정년·명예퇴직, 휴직 등을 반영해 선발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85명, 수학 81명, 영어 62명, 체육 49명, 일반사회와 역사 각각 39명, 정보·컴퓨터 26명, 생물 29명 등의 교원이 배정됐다.

국립학교는 3개 학교로부터 총 10명을 위탁받았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는 국어교사 2명, 서울대학교와 한국외국대학교는 중등 특수교사를 각각 4명씩 선발한다.

사립학교는 76개 법인, 109개교가 1차 시험을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하며, 임용 규모는 총 201명이다. 중등교사 176명을 비롯해 중등 특수교사 9명, 보건교사 6명, 영양교사 1명, 사서교사 5명, 전문상담교사

4명 등 24개 과목에서 모집한다. 특히 공립에서 선발하지 않는 경영·금융 과목 교사 2명, 건설 과목 교사 1명도 뽑는다.

올해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도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안경을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11월 2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한다.

사립학교 1차 시험은 공립과 같은 날 치르며, 법인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5배 수를 1차 합격자로 결정한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2029년 TOPIK 전면 개편… ‘AI·디지털’ 담는다

(한국어능력시험)

2030년 지원자 100만명 확보 목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2029년부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문제 출제와 채점에 AI를 활용하고,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은 평가 체계를 한국어교육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출제 체계를 개편하고, 응시 수요에 비해 시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으로 ‘TOPIK 개편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한국어교육, 측정·평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중·고급 단계 통합 또는 분리 방안 ▲쓰기·말하기 평가 방안 ▲TOPIK PBT-IBT 평가 동등화 방안 ▲청소년용 TOPIK 개발 등을 검토한다.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는 ‘TOPIK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반면 인식과 시선 추적 등을 활용한 AI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며, 유학이나 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등급부터 시행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TOPIK 지원자 100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의 종이 기반 시험과 IBT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디지털 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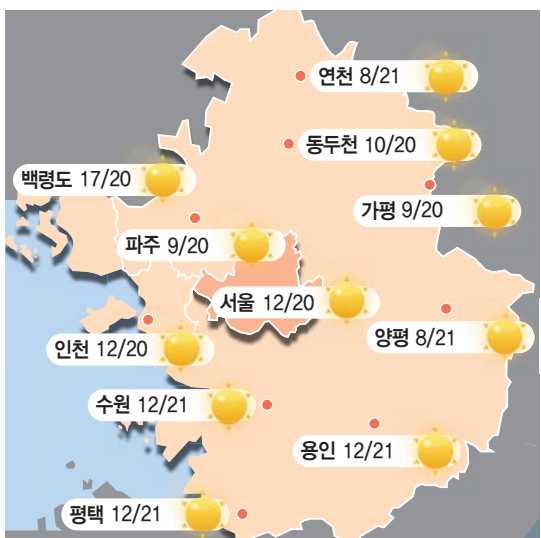
해돋이 / 06:27 | 해질 / 18:16

10월
1일 (木)
음력 : 8월 21일

수도권 날씨

12~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 사우디군 예멘 공습 하루새 35차례… 최근 누적 1158회
- ▲ 美 ‘해군 드론 사령부’ 발족… 대만해협 ‘지옥도’ 작전 영향 관심



- ▲ JP모건 다이먼 “유럽 개혁하면 美와 대규모 무역협정…韓도 참여 가능”
- ▲ 中, 국경절 앞두고 인민영웅 헌화식… 시진핑, 기념비 참배

/사진 뉴시스

- ▲ 李대통령, ‘대중 관계 중요’ 언급에… 中전문가 “실용외교 원원 결과”
- ▲ 12년만 보수계 日오키나와지사 취임… 日정부 “협력할 것”